

“편견에 도전... 아픈 손가락 같은 영화”

영화 ‘미생’ 주연 엄지원 “한국영화 다양성 위해 각별한 마음으로 연기했다”

“‘미생’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만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고요. 이 영화에 대한 이런 저런 시선들이 있는데, 전 영화가 좋으면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영화를 시작했어요.”

영화 ‘미생: 사라진 여자’(감독 이연희)(이하 ‘미생’)의 주연 배우 엄지원(39)은 이번 작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나를 위해서도,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제 후배들을 위해서도 각별한 마음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엄지원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영화 ‘미생’이 현재 한국영화계에 꽤 배한 편견과 맞서는 작품이기는 때문이다. 그건 바로 허배우가 주인공인 영화는 흥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생’은 엄지원과 공효진, 두 여배우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없는 영화다.

이런의 감독 또한 여성이다. 영화는 스틸러의 외피를 쓰고 사회 소수, 약자로서 여성을 다룬다. 그러나 엄지원이 이 영화를 “도전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엄지원이 맡은 ‘지선’은 일을 하면서 홀로 딸을 키우는 인물이다. 두 가지를 완벽히 병행할 수 없는 그는 부모 ‘한메’(공효진)를 고통해 딸을 그에게 맡긴다. 그런데, 아무것도 헌신적이지

던 보모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다. 심지어 딸도 데리고 간 것 같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선은 홀로 한메의 행적을 조금씩 추적해 간다.

영화는 지선과 한메의 애끓는 모성을 담은 작품이기는 하나 엄지원은, “단순히 모성만 보여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영화는 실제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성을 도구화하는 뿌리 깊은 시선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착취, 또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편견을 다양한 양상으로 그리는 시도에 나선다.

“모두가 이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영화의 방향성에 대한 것에서부터 장면 마다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끊임 없이 대화했고 많이 고민했어요. 영화에 대한 시선과 장면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때도 있었습니. 시간은 많지 않고 예산은 부족했죠. 이 영화는 하나하나가 싸움 같은 거라서 영화를 찍을 동안 정말 지선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때문인지 엄지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작보고회 도중 이번 영화 관련 영상을 보다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는 “이 영화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개봉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했

다.

‘미생’은 엄지원과 공효진의 여성 투통 영화로 설명되지만, 분량만 놓고 보면 엄지원 원통 영화에 가깝다. 촬영은 대략 50 회차로 마무리 됐는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게 2회차 정도에 불과하다. 신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아기가 납치당한 엄마를 연기한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과정이기도 했다.

“대본을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분량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영화 촬영이 마라톤 같은 거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지치는 건 있었죠. 감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다보니까 극한으로 가는 감정을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 아이가 있었다면 가슴 속에 흐르는 핏기가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고, 담으려고 한 메시지와 의미도 많은 작품이지만 엄지원이 관객에게 원하는 건 그저 재밌게 봐주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어쨌든 ‘미생’은 독립영화라 아닌 명백한 상업영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지선과 함께 부모 한메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 재미가 있는 스틸러 장르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미생: 사라진 여자’(감독 이연희)(이하 ‘미생’)의 주연 배우 엄지원(39)

/뉴스

전라북도 남·녀 동호인 배구대회

내달 3~4일 화산체육관에서

‘제1회 전라북도 남·녀 동호인 배구대회’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주시 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대회는 남자클럽 3부, 여자클럽 3부로 나뉘어 30개팀이 우승을 향한 열띤 경연을 펼친다. 참가자격은 만10세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도내 순수 아마추어 팀으로 진행된다.

/김민근기자

대법, 인순이 상대 23억 사기 혐의 가수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확정

가수 인순이씨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빌라 ‘비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위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건넨 뒤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박씨는 절친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리는 것처럼 가로채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미술품을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뉴스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 내달 2일 홍콩서 개최

엑소·방탄소년단·트와이스 등 화려한 라인업

연말 최대 가요 시상식인 2016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가 오는 12월 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AWE)에서 펼쳐진다.

올해 8회째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번에는 외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중국이 고고도시밀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화권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최사 CJ E&M 음악콘텐츠부문의 신형관 부문장은 그러나 최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2016 MAMA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한류금지령’(限韓令·한한령)에 대해 “여러 어려움은 늘 있다.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문제 없이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문장은 입암리에 한한령 분위기가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힌 문화 장벽과 현지 스태프들과 소통 부분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컨벤션사업국장은 MAMA가 5년째 홍콩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경제산업의 집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MAMA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영상을 보내준 바 있다. 신 부문장은 “한류 확산을 위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에 휩싸여 있어 대통령 축사는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MAMA의 라인업은 올해도 화려하다 앞서 열린 연말 시상식을 양분한 대세 그룹 ‘엑소’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걸그룹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트와이스’,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이’ 등이 함께 한다. 하지만 올해 큰 활약을 펼친 ‘빅뱅’과 ‘블랙핑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해외 일정 등으로 전원 불참을 선언했



연말 최대 가요 시상식인 2016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 간담회가 최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렸다. CJ E&M 음악콘텐츠부문 신형관 부문장, 김현수 컨벤션사업국장, 김희정 제작총괄 국장이 참석했다.

다. 제작총괄을 하는 김희정 국장은 “해외 일정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안타깝지만 YG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대신 미국의 인기 래퍼 워즈 칼리파가 참여한다. 미국의 유명 힙합 프로듀서 팀

발렌트와 한국 가수 에릭남이 협업한 곡도 MAMA를 통해 공개된다. ‘블러비’ 지코, 가수 딘, R&B 가수 크러쉬 등 협업 무대도 선보인다.

/뉴스

현빈·유해진 주연 영화 ‘공조’, 내년 1월 개봉

현빈·유해진 주연 영화 ‘공조’(감독 김성훈)가 내년 1월 개봉을 확정했다고 CJ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5일 밝혔다.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이 공조 수사를 시작하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팀이 된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형사와 남한의 생계형 형사가 똘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현빈이 북한 형사 ‘립철령’을, 유해진이 남한 형사 ‘강진태’를 맡았다.

이날 CJ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1분 분량의 1차 예고편에는 립철령과 강진태가 만나 수사에 나서는 과정이 코믹하게 담겨 극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립철령은 어설플 형사 강진태에게 “동무래 남한의 특급 수사관 맞소?”라고 묻고, 강진태는 “우리가 공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게임셋이라고 봐야지”라며 너스레를 떨다.

이번 작품은 ‘마이 리틀 히어로(2012)’를 만든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